10/4: 치유와 전도

본문**:** 사도행전 3:1~26



사도행전 3장은 실질적인 전도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3장 6절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생각하고, 보고, 느끼며,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했기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장벽을 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머리로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며, 친히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나와 그분은 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수준에 머문다면 삶 역시 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장벽을 넘어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 단계 올라선 참된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앉은뱅이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곧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해답(솔루션)을 주어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은과 금만을 주었다면 그의 영혼과 인생의 근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영원한 해답을 네게 준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되새기며,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